

월간 「설비건설」 200호 기념특집 ‘설비건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좌담회



월간 「설비건설」은 지령 200호를 맞아 설비건설산업의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과 월간 「설비건설」 발전을 위해 산·학·연·관에서 설비건설산업 제도개선 및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를 모시고 ‘설비건설산업 제2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지난 2월 13일 라마다 르네상스 인 서울 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건설업계의 관심사인 건설생산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균형적인 법개정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설비분야는 독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일관성 있게 지원 가능한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월간 「설비건설」의 발전방향에 대해 ‘창의적인 기획기사 발굴과 독자의 참여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는 이날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 일시 : 2007. 2. 13.(화) 오전 11시

□ 장소 :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23층 클럽 호라이즌

□ 토의 안건

- 제1주제 :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
- 제2주제 : 설비기술자의 위상제고와 육성방안
- 제3주제 : 설비건설업법 제정방안
- 제4주제 : 월간 「설비건설」 발전 방안

□ 참석자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 우광현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위원장
- 손명선 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장
- 강신형 기계설비협의회 회장
- 허영준 대한주택공사 기계설계처 처장
- 이진호 종합건설 기계설비협의회 회장
- 안병욱 충청대학 건축인테리어학부 교수
- 박정원 유한대학 건축설비학과 교수
-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설비연구부 연구위원
-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 진행

□ 박종학 회장 인사말씀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월간 「설비건설」 200호 기념특집 좌담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우리 협회가 지난 1989년 11월 25일 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창립된 후 1990년 5월 창간호를 발행한 이래, 어느새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월간 「설비건설」이 200호를 맞이까지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설비건설인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그동안 우리 월간 「설비건설」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그동안 설비건설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과 국내 및 해외의 신기술·신공법을 비롯하여, 하자사례 등 기술정보 보급에 힘써 왔으며, 업계 소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설비건설산업의 질적 향

상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산·학·연·관에서, 설비건설산업의 제도개선 및 설비건설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설비건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함과 더불어, 월간 「설비건설」이 좀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설비건설산업의 제2도약을 위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건설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 ▲설비기술자의 위상제고와 육성방안 ▲설비건설업법 제정 방안 ▲월간 「설비건설」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탄없이 내주시는 의견은, 설비건설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주제를 보면,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시고 계시던 사항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1. 제1주제 : 건설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물에 생명과 지능을 불어넣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분야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65억 불의 해외공사 실적 중 기계설비가 100억불일 정도로 발전한 기계설비 분야는 정작 25개 전문공종에 묶여 독립하지 못하고 하도급 받는 아이러니한 실정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건설생산체제

결정하였습니다.

건교부는 업계, 학계, 연구원으로 구성된 건설선진화포럼을 십여 차례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도 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설비건설 산업이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설비건설업자가 원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CM에 의한 중요공종 분리발주,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은 건산법 개정 부처협의안에 반영되었습니다만 정작 입법예고안에는 우리협회 의견이 모두 빠진, 단순히 겸업제한만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행의 수직적 건설생산체제에서 단순히 겸업제한제도만을 폐지할 경우, 13,000여 일반건설업체 중 1군의 일부 대형업체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들이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영업력 등에서 우세한 많은 일반건설업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하여 분리발주된 기계설비공사는 물론이고, 하도급시장까지 교란하여 설비수주가격을 하락시키

“기계설비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만 기계설비가 너무 홀대받고 저평가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

과거 우리 선조들의 난방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화로의 열기로 방을 덥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6·25전쟁 당시 미군 숙소에 난방시설을 하면서 설비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전쟁 종식 이후 국내에 설비공사가 시작되었고 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설비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0~60년대 초 마당에 수도꼭지 하나가 전부였던 설비는 ‘압’이라고 할 수도 없을만큼 작았으나 전기는 그 비중이 커서 큰 회사들이 많아지자 설비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설비는 지금 건축

개편에 따른 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택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산법 개정안이 설비업계의 향후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건설생산체제 개편 배경에 대하여 그간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상정과정, 그리고 우리협회 활동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겸업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발주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건설업자 중심의 현행 생산체제를 발주자 중심의 건설생산체제로 개편하기로

고, 무면허 업체의 위장직영 등으로 설비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적으로 기계설비를 전문으로 시공하던 업체는 건축업이나 토목업으로 업종전환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설비전문건설 업체는, 일반건설업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6년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실적 165억불 중, 70%가 플랜트 분야인 기계설비업종에서 달성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의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만 기계설비가 너무 홀대받고 저평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협회는 정부가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으로, 25개 전문업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겸업제한을 폐지하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건산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은 해를 넘겼으며, 금년 4월 중에 건교위에서 다시 심의키로 되어 있습니다.

건산법 개정안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

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대하여 우리 기계설비가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강신형

기계설비협의회 회장



“성급한 겸업제한 폐지는 설비의 독립성 상실과 업체의 경영부실로 대학 교육현장 위축, 후속 기술인력 감소 우려”

저는 기계설비협의회 회장이지만 이 주제에서는 학회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는 학문적으로 일반 건축이나 토목공학과는 그 뿌리가 다른 공학이고 학술단체도 건설교통부 등록 사단법인으로 대한설비공학회 가 설립되어 35년 정도 운영되고 있

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준시방서, 표준 품셈도 별도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설비공학회는 설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설계가 잘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축의 시설물에 대하여 작년부터 ‘우수설비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 절약형 설비, 시스템이 편리하고 신뢰성 있는 설비가 요구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시스템으로서 기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이냐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설비의 설계, 기자재 선택, 시공, 운영에 있어 높은 기술 축적과 고급 기술인력이 요구됩니다.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은 건설업자의 겸업제한만을 폐지하여 설비의 독립성과 학술적인 특성이 무시되고, 설비건설업자를 일반건설업자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직동안 영세하고 기술축적이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급하게 개혁 한다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개발 및 어려운 경영 속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중소 설비전문회사와 종사하는 많은 기술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정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생산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업체한 폐지에 대하여 우리 설비업계의 우려를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업계도 여러 유관 단체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서로 격려하여 설비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비를 다루는 전문건설업체로서 각 업체는 공사와 시공 대상에 따라 더욱 전문화하는 노력 및 계열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사수수 가격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여 우리 스스로 업계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또 기술을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협회와 대한설비공학회 전문가들의 긴밀하고 협력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영준 대한주택공사
기계설계처 처장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계설비를 중요 공종으로 분류하고, 기계설비의 품질확보와 정밀시공을 위해 옥외 기계설비와 가스설비는 100%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옥내기계설비의 경우 부분적으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법 개정 목적은 건설업자 중심의 발주체계를 개선하여 수

“발주자가 건설업자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CM에 의한 중요 공종 분리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다양한 발주방식 검토 필요”

저는 기계를 전공했고 주택공사에서 다년간 현장에 있다가 이번에 기계설계처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962년에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는 60년대 당시 아파트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 국내 최초로 아파트를 건설하였으며, 45년간 아파트건설에서 판교 등 신도시 개발까지 국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선두주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14만2천호를 공급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데 일조할 계획입니다.

우리공사에서는 주택의 질 향상과

요자 중심의 건설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경우, 전기설비와 같이 기술적 특성이 건축·토목과는 다릅니다. 건설공사에 통합 발주하여도 실제시공은 100% 하도급으로 기계설비전문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공사는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 저가하도급심사, 주요자재가격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불공정하도급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계설비의 품질확보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분리발주 등 나름

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나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법 개정으로 일반·전문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일반건설업자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저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장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설비를 분리발주하는 것은 실제 시공조직과 시공능력을 보유한 설비건설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시공하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비는 모두 현장에 투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설생산체계 개편시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CM에 의한 중요공종 분리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계설비의 경우, 공동주택 시공 경험이 많은 기계설비전문건설업자가 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직접시공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기계설비의 정밀시공과 품질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강체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원 유한대학
건축설비학과 교수



현행의 건설생산체계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전문은 일반업을, 일반은 전문업을 영업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 일반은 원도급, 전문은 하도급으로 건설생산체계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건설업자의 겸업제한)에 일반건설업자의 시장지배적인 우월적 지위로부터 전문건설업자의 전문성 및 영업보호를 위한 조항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시행에 있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과도한

경쟁을 하다보니 저가하도급 및 불공정하도급이 원인이 되어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발주자의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설생산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순히 일반·전문 겸업제한제도만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건설이 전문건설 영역인 하도급시장을 독점하고 전문건설은 일반건설 시장(원도급) 입찰 기회를 상실하며, 이로 인해 영세한 설비전문업체의 도산으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상실할 것이 우려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단순겸업제한 폐지시 설비분야의 기술력저하, 부실시공의 확산, 전문인력 양성의 기피 등으로 국민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의 조성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 절약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시켜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절약과 쾌적한 환경조성 위해 적절한 설비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는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필요”

□ 손명선 건설교통부
건설지원팀 팀장



지난 2005년 11월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을 결정하고 발주관련 규제를 조정하여 발주자 중심의 건설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건설생산체제 개

편의 기본방향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건설선진화포럼을 구성하고 공청회를 거쳐 점업제한폐지가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해 7월 25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안에는

- 건설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간 점업제한 폐지
- 직접시공 촉진과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기대하고 공동도급 등

다양한 발주방식 도입기회 부여

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정부안은 개혁과제로서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계설비는 기술적 특성이 토목, 건축분야의 전문업종과는 달라 일반건설업 진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기계설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기계설비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2. 제2주제 : 설비기술자의 위상제고와 육성방안

□ 신현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설비연구부 연구위원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연구분야의 한 사람으로서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84년 설비분야에 몸 담은 후 23년간 연구분야에 종사하면서 느낀 설비업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처음 설비분야에 진출했던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업계가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다 통합발주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침은 늘 공허하게 메아리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

“과열경쟁에 의한 출혈로 설비기술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설비건설의 앞길은 밝지 못해”

계의 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환경은 조성되었으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창립할 당시만 해도 플랜트연구부라 해서 설비의 비중이 컸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포션이 줄어들어 지금은 10~15%의 비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3년 화재를 내세워 화재·설비 실험연구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설비는 건축과 흡수되었다가 떨어져 나오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설비부는 명맥을 유지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연구원은 연구용역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업계가 부실하다 보니 연구용역 의뢰가 적어지고, 설비부의 목소리도 그만큼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메아리되어 돌아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기 보다 밖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23년 동안 설비분야에 몸담아 오면서 느낀 점은 모든 산업이 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목, 건축 등 그 안에서 설비가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열냉난방이

향후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재생에너지분야를 열어 지난 몇 년간 업계와 연구소가 합심하여 어렵게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기반이 조성된 지금 규모 있는 업체가치고 들어오니 텅핑이 심해졌습니다. 지열냉난방분야에만 약 20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법 큰 업체가 들어오니 중소기업은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텅핑수주가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마련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데 저가하도급, 겸업제한 등이 없다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답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 건축과 휴전하여 제값을 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업계는 기술개발 및 시공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성도 필요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과거를 답습하지 말고 반성하면서 검토해야 합니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단순히 일반·전문 겸업제한만 폐지한다면

‘우리가 설 수 있는 땅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고 다른 살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밝게 조성되고 있는, 모처럼의 주어진 기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과열경쟁에 의한 출혈을 감내하고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이 분야의 종사자와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설비건설의 앞길은 결코 밝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 박정원 유한대학교 건축설비학과 교수



○ 대학에서의 설비과에 대한 인식

지난 84년 대학에서 처음으로 설비분야의 학과가 생기자 입학생이 많아 위상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대학에서 설비과의 위상은 일반적으로 대학 내 중하위권 내지 중위권 정도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도록 해야”

는 최근 각 대학마다 신입생 모집이 줄어들면서 설비과의 존재도 같이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신입생 모집 문제가 이슈로 되면 구조조정 계획 단계에서 설비과의 존재가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 90년대 말 32개교이던 순수 설비과의 수가 현재 9개교[4년제 3개, 2년제 6개(유사학과 포함 12개교)]만 남아있습니다.

○ 설비과 학생들이 보는 설비업계에 대한 인식

199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설비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설비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설비과를 졸업하여도 설비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취업하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Y대학의 경우 과거 5% 내외에서 2005년 10% 이상으로 증가)입니다. 이는 설비과를 졸업한 선배들로부터 설비분야에 취업하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보수와 개인시간 면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특히 설계분야는 야간근무의 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하

여 높은 반면 기사의 경우 야간 근무당이 없어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업이 건설업에서 항상 원청이 되지 못하고 하청인 구조가 졸업생들이 기피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같은 대학 졸업생이라 할 지라도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원청회사에 근무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 졸업 후 사회진출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수 설비기술자 육성방안

① 설비업의 홍보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비업 홍보를 꾸준히 함으로써 대학에서 우수인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해 기계설비협의회에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각 대학에 배포한 것은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해마다 대학에서 EXPO를 하는데 그 때 설비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니 설비가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생각을 바꾸는 학생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설비가 중요하다는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대학에서는 처음부터 우수한 신입생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② 설비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학 설비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 정비, 우수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고교생들에 대한 홍보, 우수 졸업생에 대한 혜택 마련, 설비분야 석·박사급에 대한 연계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에도 확대시켜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③ 교과과정의 공동개발

현재 대학의 설비과 교과과정 중 기초과정은 대학에서 개발하고 응용과정은 대학과 업계가 실무에 적합하도록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응용분야는 적어도 2~3년마다 학계와 업계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하여 가는 기술을 교과내용에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④ 설비분야 교수모임의 활용

업계는 설비분야의 교수모임과 대학의 석·박사과정의 연구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설비분야의 발전과 함께 연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생산현장으로 돌릴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함으로써 설비업계의 홍보도 되므로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순수설비를 전공한 박사 1

호가 경원대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그동안 연구 개발하려고 해도 설비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업계가 적극 활용하여 설비업계의 발전을 꾀해야 하겠습니다.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건설산업이 태동된 50년 전에는 설비라는 용어가 생소하였으나, 지금은 건설공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인텔리전트빌딩의 경우 전체공정의 40%, 반도체나 LCD공장은 70%를 점하는 핵심적인 업종이 바로 기계설비입니다.

70년대만 해도 설비공사는 종합건설회사가 설비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문업체를 기술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부터 현장시공도면,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일련의 모든 설비 시공기술을 설비건설업

체가 맡아 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업계는 20년 가까이 기술 발전을 하여 설비공사는 건설공사에서 중요성과 역할이 큰 만큼 기술력과 관리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공한 파주 LCD 공사현장에서 그 구성을 보면 건설회사 관리자가 10명 설비전문업체는 200명의 관리자가 붙어서 시공하였습니다.

설비건설업은 아직까지 하청업체로 인식되고, 보수면이나 비전이 일반건설업체에 비하여 열악하지만 과거보다는 지위가 향상되었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설비공사는 타 전문공사업종보다 독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에서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건설 시장 발전과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의 제고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현행 학교교육은 다소 경직되어 급속한 건설기술 발달과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실

무와의 괴리가 발생하여 우수한 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산·학 공동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업계와 학계 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건설산업현장과 밀착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업계에서도 기술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협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계설비기술자의 위상제고와 유능한 인재양성,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장학금 지급, 우수졸업생 시상, 산학협력 체결 등 다각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미래의 성장기반인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를 위해 학계와 상호협력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학계에서도 산업체가 친화력과 리더십 있는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만큼 맞춤형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설비건설시장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산·학 공동프로그램 마련하고 산업현장과 밀착된 교육 이루어져야”

3. 제3주제 : 설비건설업법 제정방안

□ 안병욱 충청대학 건축인테리어학부 교수



계획과 설계, 공정관리, 품질관리, 유지 및 보수관리 등이 독립적인 기술체계에 의하여 시행·운영되는 독립된 분야로서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설비공사는 일반 건축·토목공사와는 다른 기술전문분야로 설계도서류(설계도, 시방서, 내역서, 설계계산서)가 별도로 작성되고 있으며 각종 시

영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역,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영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기계설비 관련 설계, 공사, 감리의 영역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취급하는 사고도 다르며, 영역의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대립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설비의 영역도 소위 기계설비와 소방설비, 가스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으로 관련법에 따라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현행 하도급 구조의 제반 문제 해소 및 시공품질 향상 유도,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설비관련법 제정 필요”

모든 문제점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20년 이상 설비분야 교육을 하면서 “설비분야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시간 지나면 좋은 지위와 보수 받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처우 문제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고민하다보니 설비건설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설비건설업법 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설비건설은 시공은 물론 공사의

공기준도 별도로 지정(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표준품셈)되어 독립화·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비는 건설 분야의 타 공종과는 달리 공기조화, 난방, 냉방, 환기 등을 위하여 건축물 소요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에너지사용시설로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설비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훈련된 기술자에 의한 업무수행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설비는 그 학술적 영역, 건축법에 의한 영역, 설계도서상의

뿐만 아니라, 설비의 영역이 법을 관장하는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에 따라 점차 분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방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중수도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도시가스설비 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상의 기계설비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여러개 전문건설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시공업 등의 업체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설비건설은 대부분 하도급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설비공사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시공품질 향상 유도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설비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월간 「설비건설」 200호 기념으로 마련된 이 자리를 계기로 협회와 학회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자주 가져 공동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학 회장님께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우광현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위원장



금번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중 제일 큰 안건이 일반·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 폐지인 바,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이

“전기공사와 같이 기계설비의 분리발주를 위해 설비건설업법 제정 필요”

고 제일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기계설비건설업자입니다.

여러분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100% 분리발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겸업제한 폐지는 규모와 조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우리 기계설비업체로는 종합건설업체와 비교해 경쟁력이 열악하여 당연히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K리그 프로 축구팀과 동네 조기축구팀과의 경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쟁에서 누가 유리하고 누가 이길 수 있는가는 이 세상 사람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뻔한 사실입니다.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크게 분류하여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 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계설비공사는 건설공사의 큰 공종의 하나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건설공사의 일개 공종으로 분류되어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몇몇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직접 분리발주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 공종 중 우리와 유사한

전기공사의 경우 현재 독자적인 전기공사업법이 있어 모든 전기설비공사가 분리발주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기계설비공사도 전기공사와 마찬가지로 100% 분리발주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계설비건설업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계설비인이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전기공사업계를 벤치마킹하여 각고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 이진호 종합건설 기계설비 협의회 회장



최근 아파트 하자발생 유형 및 입주자들의 관심은 작년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크랙, 누수하자가 60% 이상을 차지했

“사회적 인식 변화와 우수한 인재 유입으로 설비건설업법 제정 앞당겨야”

는데 작년부터는 시스템, 냄새, 환기, 에너지관리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한 면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부터 입주자들의 마인드가 설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법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 제정은 설비건설업의 위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협회만의 일이 아닌, 설비관련 협회나 학회등 관련단체가 다같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종합건설회사에서 인재가 중요하나 최근들어 인재확보가 어렵습니다. 종합건설 기계설비협의회의 모임을 해보면 설비를 담당하는 분들이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의견과 설비전문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 모두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모여들어야 설비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업법 제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허영준 대한주택공사 기계설계처 처장



최근 저희 회사에서는 폐기물과 조경분야에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를 해보니 가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도 분리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덩치가 커져야 합니다.

현재 건축법시행령에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설비기술사의 조력을 받도록 규정하여, 설비기술자는 보조자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격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기계설비의 특성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의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있으나, 대부

분의 기계설비공사가 건축에 포함되어 발주됨으로써 수주실적이 전혀 없으며, 기계설비공사의 감리는 종합감리나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택공사의 경우, 1980년대부터 옥외기계설비는 분리발주하고 있으며, 2001년 옥내기계설비공사를 시범적으로 분리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뒷받침이 없어 분리발주에 따른 감사지적사항과 다른 부서와의 업무협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수인력이 입학해야 하나 기·전·건·토의 학과가 우선순위이다 보니 설비는 자연히 뒤처지게 됩니다. 단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학교에서는 물론 건설현장에서도 기계기술자의 위상이 가장 뒤처지는 것도 역시 우리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 기계설비도 독자적인 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설비건설업계와 학계가 주축이 되어 설비기술자 및 관계자 모두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설비건설업계와 학계가 주축이 되어 설비관련 종사자 모두 공감대 형성토록 법 체계 구축 필요”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최근에는 IT (Information Technology), ET (Environment Technology) 등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건축물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40%가 설비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비공사는 건축물에서 공사비의 구성, 에너지 절약, L.C.C(Life Cycle Cost) 측면과 그리고 시설물

의 품질향상 기여도를 감안할 때 건축·토목공사보다도 중요한 공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현장시공도면, 시방서, 내역서도 건축과는 별도로 제작되고 있으며, 공정관리와 현장시공관리도 건축공종과 협조 아래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법에 기계설비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을 일반건설업자에게 부여하여, 기계설비공사업자는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병욱 교수님이 분석한 바와 같이, 기계설비의 설계, 시공, 감리의 영역이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

“업계, 학계, 기술자 모두 힘을 합쳐 법 제정 도전 필요”

설기술관리법에 모두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비용 절감, 설비공사 분리발주, 설계, 시공, 감리의 일관성 유지, 설비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유지관리자의 위상정립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설비건설업법 제정이라고 봅니다.

설비건설업법 제정은 건축, 토목 관련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자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험난한 여정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설비업계, 학계, 설비기술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전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 제4주제 : 월간 「설비건설」 발전방안

□ 우광현 대한설비건설협회
편집위원장



지난 번 박종학 회장께서 우리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협회 회보지인 월간 「설비건설」을 보다 나은 양질의 회보지로서 일보 업그레йд 시기기 위하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월간 「설비건설」 편집위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편집위원으로 (주)우원의 임종태 사장과 태우기술(주)의 은근수 사장을 임명하여 저를 비롯한 3명이 협회 편집부 2명의 직원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설비건설업계는 물론 모든 설비기술인이 유익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설비건설업계의 홍보 강화를 위해 500부 증가 발행키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나? 를 고민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설비건설」지는 1990년 5월 창간호 발행 이후 3월호로 200호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계신 여러분은 물론 전 설비기술인의 애정과 격려와 아낌없는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월간 「설비건설」은 총 5,000부를 발행하여 4,500여 회원사 및 건교부 등의 관공서, 발주기관, 종합건설업체, 대학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2007회계년도 부터는 500부를 더 발행하여 배부처를 좀 더 늘려 저희 협회의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편집활동을 해오면서 ‘편집방향을 다각화 하고 독자의 참여도를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설비인들에게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읽을거리,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면서 독자 투고 및 설비인들의 삶을 수록하는 등 독자의 참여도를 넓혀서 독자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는 회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진호 종합건설 기계설비 협의회 회장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발행지인 월간 「설비건설」을 매월 건설사에 송부하는 노고에 우선 감사 드립니다. 종합건설사의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설비전문업체의 현황을 월간지인 「설비건설」을 통해 알 수 있었고 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월간 「설비건설」은 설비분야의 타 단체 월간지들과 달리 전문지식 외

에 여러 가지 설비산업의 문제점, 하자사례, 설비업무에 필요한 법령 등 설비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 및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현장실무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산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유일한 설비 전문잡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비의 업무는 무척 다양해지고 복잡하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설비 시공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기술과 신 경험사례를 소개하므로써 설비인들의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부의 건축관련 정책에 대한 빠른 정보와 그에 따른 설비의 방향 등 시사성 있는 기사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설비공사관리 신공법, 현지의 설비업계 사례 등을 개재함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설비업계도 이제 종전의 틀을 벗어나 업무영역의 다양화, 기술

“시사성 있는 기사 및 해외 설비공사의 신공법, 시공사례 등 다양한 정보제공 필요”

혁신, 기술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설비인의 위상확립에 노력해야 하며 가장 실무선에 있는 설비건설업계의 대변자인 「설비건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요시점에 창간 2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양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모든 설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보지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강신형 기계설비협의회 회장



우선 발행부수나 영향력 면에서 독보적인 월간 「설비건설」 200호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한설비공학회의 임원과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 기계설비업계의 협의체인 기계설비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유관단체 중 핵심 단체인 대한설비건설협회의

활약을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현재 기계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 기계설비협의회 내의 산하기구인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여러 유관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의 편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여 각 단체의 회원들에게 폭 넓은 정보 제공 및 중복을 배제하는 등 기계설비업계 전체의 이해의 폭을 증진 시키고 단합에 기여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서로 공감했지만 각 단체 별로 좋은 기사를 기획하고 기사화하는 작업에서 한 치의 여유도 없이 매달 시간에 쫓기다 보니 생각보다 긴밀한 협력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지의 목차 안내를 게재하고, 주요 사업 및 동정을 서로 인용하여 소개하고, 특히 협의회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신년 교례회 및 기계설비 분야의 유공자 표창 등의 공동 행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호를 맞는 월간 「설비건설」은 우리 업계의 공동 사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설비분야의

구심점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회의 많은 회원을 중심으로 많은 독자층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비분야에 종사하지만 다른 단체에서 공헌하는 인물 소개 및 설계, 기술개발, 제품 생산, 시공, 감리 등 여러 분야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 주면 좋겠습니다.

설비와 관련된 기술정보를 신속하게 다루어 주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깊이 있고 창의적인 기획 기사를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넓은 전문가를 확보해야 하고, 기사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독자들의 발언 창구를 넓혀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독자들이 참여하는 「설비건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비건설」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와 원하는 바를 적극 파악하고 이를 기획에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독자들이 기다리는 월간지가 되는 것이지요.

“깊이 있고 창의적인 기획기사, 독자들의 창구 넓혀 공감대 형성 필요”

□ 박종학 회장 마무리 말씀



건설생산체제 개편에 따른 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을 필두로 월간「설비건설」발전방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건설생산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부실시공 유발로 설비시설물의 품질을 저하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낭비 발생 등 설비건설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또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설비건설업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비기술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

비건설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설비분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하여 설비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새겨 월간지의 활성화를 피하겠습니다.

우리협회에서는 오늘 토출된 의견들을 잘 검토하여 설비건설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거론된 의견들을 월간「설비건설」에 게재함으로써 전 설비건

“건설생산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부실시공 유발로 설비시설물의 품질을 저하하고 유지관리에 따른 에너지비용 낭비 발생 등 설비건설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또 겸업제한 폐지시 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설비건설업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설비분야는 독립성이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일관성있게 지원 가능한 설비건설업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체가 된 월간「설비건설」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행부수를 늘려 독자층을 더욱 확대하고 편집방향을 다양화 하여 독자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월간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은 깊이

설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협회와 월간「설비건설」을 적극 성원하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설비건설업계 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